

## ■ 2025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동시) 1차 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5년도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동시)
- 회의일시 : 2025년 2월 5일(수) 15:00~16:03
- 회의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박효미, 장옥관, 장주식 심의위원

아르코문학작가펠로우십은 문학계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를 집중지원, 창작지원금을 포함 강연 발간 홍보 등 문학현장 후속활동에 대한 예술위 문학 플랫폼 연계 활동까지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집중지원은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발돋움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동시 분야 심의기준은 예술위원회 지원심의위원회 운영규정과 지침, 가이드에 따라 그간 창작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으며 예술적 역량을 갖추었는가, 25년도 계획된 활동이 적절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본 사업지원을 통해 동시인으로서 새로운 성취가 기대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온라인 사전채점 및 전수검토의견 작성, 이후 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동시분야 신청건수는 총 65건, 이중 결격건수 3건을 제외 62건이 심의 대상이 되었다. 2010년 이후 동시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을 반영하는바, 기존의 동시인들 뿐 아니라 새롭게 진입한 동시인들의 활약으로 인해 동시계의 눈부신 확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성인시를 쓰던 시인들이 동시 영역으로 편입, 새로운 영역을 개척 확장, 동시단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했다. 기존 동시에서 다루지 않았던 소재와 상상의 공간 확장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이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동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문제 등 향후 동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을 반증한다.

동시계의 이러한 성장 안에서 동시인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로 어린이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가, 차별화된 자신만의 색채가 있는가, 문학적 성취와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후 활동 역량, 발전가능성은 기대할 만한 수준인가, 하는 점들을 논의 지표로 삼았다. 환상과 현실을 융합, 낯선 영역의 소리를 동심의 눈으로 해석한 동시집들, 뛰어난 언어구사력을 바탕으로 소재를 확장시킨 동시집들, 독특한 상상력을 동시와 접목시켜 자기 고유영역을 만들어 낸 동시집들을 주목했다. 또한 현실에 질문을 던져,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동시들에 대해 논의했다.

1차 선정된 작가들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독특한 상상력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 언어, 시적 영역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시인이라는 점도 공통적으로 주목할 만한 점이었다.

한편 어린이들이 직접 동시를 읽고 어떤 감동과 즐거움을 느끼는가, 이는 뛰어난 언어로 잘 쓴 시를 읽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느끼는 울림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쓰는 게 동시의 본질인바, 언어유희에 치중한 나머지 어린이의 삶과 멀어질 수 있는 우려는 늘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심의위원 일동